

동포 여러분, 우리 서로 칭찬합시다!

사할린주
사회정치신문

Общественно-
политическая газе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새고려신문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2026년 2월 27일(금)
--(윤력 1월 11일)--
Пятница
27 февраля 2026 г.
№ 8 (12175)
1949년 6월 1일 창간

Цена свободная



▲ 봄이 온다. 곧 3월 1일이다.

(이예식 사진기자)

유즈노사할린스크에 현대식 항공기 정비단지, 1년 반 만에 투자금 상환

유즈노사할린스크에 건설된 오로라 항공기 정비용 현대식 격납고 단지가 1년 반도 채 안되어 투자금을 전액 상환했다.

사할린주 정부 알렉세이 벨리크 총재가 중요한 교통 제반시설의 운영을 시찰했다. 오로라 항공은 사할린주만 아니라 극동 및 시베리아를 연결하는 정기 항공편을 운항하고 있으며, 2025년에는 160만 명의 승객이 오로라 항공기를 이용했다. 사할린 주정부는 이 기업 지분의 49.99%를 보유한 최대 주주이다. 탑승객 수요가 많은 주요 노선에 A319 항공기 8대가 운항하고, 지역 노선에는 DHC-8 항공기가 운항하고 있다. 이 기업은 70석 규모의 Q400항공기 5대와 50석 규모의 Q300 항공기 1대를 보유하고 있다. 2021년에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극동지역 교통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오로라 항공사를 거점으로 극동 통합 항공사가 설립되었다.

알렉세이 벨리크 총재는 "푸틴 대통령은 국내 동부 지역의 항공교통을 개발하라는 과제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서는 수입대체를 반드시 확보하고, 러시아 영토에서 DHC-8 기종의 정비체계를 갖추어야 했다. 이에 모든 항공기 정비를 위한 장비를 다 갖추고 있는 특별 격납고 단지를 유즈노사할린스크 공항에 건설하기로 했다. 비로소 이 격납고 단지(항공기 유지 보수, 정비 및 보관)가 2024년 가을에 가동되기 시작했고, 시간이 흐르면서 이러한 결정이 옳았음이 증명됐다.

항공사는 더 이상 정비를 위해 항공기를 해외로 이송할 필요가 없어졌다.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거의 모든 정비가 이뤄지기 때문이다. 이제 격납고 단지 건설을 위한 투자금도 전액 상환했고, 사할린의 전문가들이 독보적인 권위와 역량을 갖추게 된 것도 중요한 성과다. 현재 오로라 항공사는 우리 지역에서 탑승객 수송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

며, 대규모 공항을 가진 사할린 지역은 다른 지역들을 연결시키고 있다. 이제 사할린과 쿠릴열도의 주민들은 휴가, 업무, 치료를 위해 항공기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고, 이로써 지역 발전과 주민 생활의 질적 향상에 크게 기여했다."고 말했다.

격납고 단지의 총면적은 1600m²가 넘으며, 건물의 높이는 17m에 달하고, 내부는 밝은 조명과 쾌적한 온도를 유지하고 있다. 콘스탄틴 수호레브릭 '오로라'항공사 회장은 "예전에 사할린에는 항공기 정비를 위한 실내시설이 전혀 없었다. 그래서 항공사 직원들은 그 어떤 날씨에도 야외에서 정비작업을 해왔다.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다. 그들이 따뜻한 곳에서 일하고 있는데 이는 작업 여건과 비행 안전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격납고 단지 건설로 항공기 정비 속도가 빨라져 항공사가 항공기 한 대를 더 확보한 효과가 조성되고 있다. 항공 운송량이 증가하는 여건에서 이는 상당한 승부수였다."고 보고했다.

현재 사할린 공항 격납고에는 DHC-8 Q400 기종이 정비되고 있는 가운데 항공기 날개와 엔진 부분이 분해되고, 객실 좌석과 내장재도 일부 제거하여 가장 큰 기술적 정비를 받고 있다. 항공기 정비기술장 왜체슬라브 그립코브는

"항공기는 외피까지 분해하여 모든 연결부분, 기계기술장치에서 금속 마모, 숨은 손상, 부식 여부를 점검하는 가운데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전 시스템을 정비하고 있다. 또한 수명이 다한 부품을 교체하고, 객실을 새로이 단장하며, 좌석 커버로 교체하고 있다. 3월 말까지 작업을 완료하면 격납고에서 새로운 항공기가 되어 나올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현재 '오로라'항공사와 사할린주 정부는 유즈노사할린스크에 공항단지 정비를 위해 새로운 시설 건설에 대한 문제를 연구하고 있다.

단신

2026년 사할린동포 영주귀국· 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신청 접수 3월 3일 시작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하여 올해도 사할린동포 영주귀국·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신청 접수가 2026년 3월 3일(화)부터 시작된다. 사할린동포 중 희망자들은 대한적십자사 또는 러시아·CIS 지역 재외공관을 방문하여 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접수는 4월 30일까지 진행된다. 2026년 사할린동포 영주귀국·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사업 선정 대상자 예비 수는 234명이다.

주지사, 사회원 위원들, 사회활동가들과 삶의 질을 논의

알레리 리마렌코 주지사가 지난 2월 25일(수) 사할린주 사회원 위원들과 만나 지역 생활의 질 평가 결과를 논의했다. 사할린주는 러시아 전라주도청(ASD)이 발표한 전국 생활의 질 평가에서 5위를 차지했다. 회의에서 리마렌코 주지사는 순위 자체보다 주민들의 실제 체감도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평가에서 사할린주는 특히 장애인 복지 분야에서 큰 성과를 인정받았다. 이 순위는 교육, 의료, 사회복지, 환경, 안전, 여가, 교통, 공공 편의시설, 주택, 물질적 복지, 고용, 저축 등 12개 분야에 걸쳐 149개 지표를 고려하여 작성되었다. 사할린주는 특히 장애인 감소, 재활장비서비스, 의료 접근성, 청년인구 유지, 도로, 지역 문화행사 등 기타 지표에서 많은 점수를 따냈다. 회의에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서 더 노력하고 지역 문화행사 홍보를 강화하며, 도로 보수에도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사할린국립대, 공개의 날 행사 개최

사할린국립대학교가 오는 28일(토)부터 토요일마다 <공개의 날(학교 방문)>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토요일에는 '에너지와 미래 기술의 날'을 진행하여 사할린국립대의 자연과학 및 기술 분야 안전 대학을 소개한다. 방문객들은 우주에 대한 강연, 프로그래밍 체험, 드론 탐방, 노벨상 수상자 견학에 참여할 수 있다. 또한 대통령 지시로 건립 중인 '사할린테크' 캠퍼스의 연구실을 직접 둘러볼 기회도 주어진다.

'제플리츠니', 3월 8일 맞아 약 100만 송이 꽃 판매 예정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앞두고 '슈호즈 제플리츠니'가 이날의 상징인 튤립 꽃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온실에서는 약 93만 송이의 튤립이 자라고 있다. 2월 25일에 87만 송이 수확 예정이었으나 12만 송이의 튤립을 수확했다. 앞으로 튤립뿐 아니라 다양한 품종의 장미도 함께 준비돼 사할린 여성들을 위한 꽃 선물 선택의 폭이 더욱 넓어질 전망이다.

새고려신문

2026년 상반기 신문 구독 계속!

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2026년 상반기 새고려신문 구독신청을 계속 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사할린 한민족지를 애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1개월 구독료는 147,66 루블리입니다. 신문 인덱스는 ПР575입니다. 신문은 주내 모든 우체국에서 구독할 수 있습니다. (본사 편집부)



'설날: 조상들의 놀이' 전통 한민족 놀이 축제, 즐겁고 따뜻한 분위기 속에 진행

사할린에서 이번에 모든 한인단체들이 풍성한 음력 설맞이 행사를 개최했는데 그중 설의 전통과 풍습을 되살리는 행사가 하나 있었다.

지난 21일(토)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KOWIN) 러시아 사할린지부가 사할린 한국교육원과 공동으로 유즈노사할린스크의 한인문화센터 대강당에서 제1회 '설날: 조상들의 놀이' 축제를 개최했다. 사할린한국교육원 정승훈 원장과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 최금순 사할린 지부장은 이날 참가자들에게 따뜻한 음력설 축하인사를 전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를 기원했다. 특히 임기를 마치고 2월 23일 귀국하는 정승훈 교육원장은 이번 사할린 행사가 마지막이어서 소감이 남다르다며 사할린동포, 사할린 땅에 대한 특별한 사랑을 전했다.

본격적으로 전통놀이 대결에 들어가기 전에 KOWIN 멤버인 하이 옥자 사할린주미술박물관 수석 연구사는 우선 음력설의 전통과 풍습을 간단히 소개했다. 한복을 곁에 차려 입은 우리말방송 KTV 이복순 기자는 이날 무대에서



한국어로 설인사를 가르치면서 참석자들 모두가 한국어로 설인사를 나누는 법을 배우며 명절의 분위기는 한층 흥겨워졌다.

음력설은 가정적 명절로서 이날 대회에 참가한 가족단위, 친우단위의 7개 참가팀들이 심리 상담가 율리아 스테블란스카야의 지도 아래 제기차기, 투호, 비석치기, 공기놀이, 딱지 등 다양한 전통놀이에서 실력을 겨루었다.

이날 1등한 '아이들-캔지(제트키-콘페트키)'팀은 두 친구의 어머니와 이들의 어린 자녀 셋으로 구성되었으며 1등 상으로는 7000루블리의 한식당 상품권을 받았다. 2등한 '호랑이들'팀(5000루블리 식당 상품권)은 16세의 친구

들로 구성되었고, 3등한 '아제니스'팀은 40-70대 어른들로 구성되었다. 무엇보다 행사에 동포뿐만 아니라 다른 민족들도 관심을 갖고 참여했다.

가장 어린 참가자는 6세였고, 연세가 있는 분은 70세 넘었는데 어린이나, 어른들이 모두 함께 즐거움을 나누며,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고 흥겨운 놀이에 빠진 가운데 16세의 여학생은 '시간을 이렇게도 보낼 수 있나?'라며, 참석자들은 하나같이 '다음에 꼭 다시 한 번 이런 행사에 참가하겠다.'는 말도 했다. 행사장은 응원의 소리와 웃음 소리로 가득했다.

이날 '에트노스'아동예술학교의 '태양'한민족타악기 앙상블(지도 신 율리아)의 율동과

사할린한인문화센터 소속 '희망'무용단의 소고춤이 멋진 무대를 선사해 명절 분위기를 돋우었다. 이날 7명의 강한 결속력 구성된 '희망'무용단은 놀이 대결에도 나섰다.

행사는 주최 측에서 준비한 다과회로 마무리되었다.

이번 행사는 '사할린 아리랑' 장학회(한국사업가 단체), 유즈노사할린스크영사출장소(소장 국장현), '베들레헴'회사(사장 장용운)의 지원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출장소에서 참가상으로 모두에게 탁상 달력을 나누어 주었다.

주최 측으로는 KOWIN 신입 구성원들이 처음으로 함께 하는 행사였는데 원만하고, 화기애애한 분위기속에서 무사히 마무리되어 기



뽕을 표했다.

최금순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 사할린 지부장은 "사할린 주민들에게 음력설의 전통놀이를 알리고 가정적인 분위기를 만들고 싶다는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했습니다.

한민족 문화와 역사를 소중히 여기고, 따뜻한 마음을 나누기 위해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참가자들이 최고였습니다."라고 전했다.

(취재: 배순신 기자)

이 모 저 모

사할린, 조국수호자의 날 기념 대규모 차량 행진 개최

2월 22일(일) 사할린에서 조국수호자의 날을 기념해 대규모 차량 행진이 개최된 가운데 특수군사작전 참전용사들을 지지하는 애국행사에 600명 이상이 참가했다. 그중 사회단체를 비롯해, 스포츠 단체 청년단체의 대표들과 '우리함께(#МЫВМЕСТЕ)' 조직의 자원봉사자들, 통합 러시아당 활동가, 일반 주민들도 참가했다.

깃발과 상징물로 장식된 260대의 차량들이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푸쉬스티' 간이비행장을 향해 떠났다.

주최 측은 그곳에서 풍성하고 다채로운 문화 프로그램과 다과를 마련했다.

'푸쉬스티' 간이비행장에서는 39 독립기동소총여단과 특수군사작전 참전병들과 전적으로 그들의 가족을 지원하는 활동에 크게 기여한 자원봉사자들에게 표창장을 수여하는 시상식도 진행됐다. 행사를 마무리하며 '사할린의 정원' 그룹 활동가들이 특수군사작전지역으로 보낼 장비 차량 6대를 전달했는데 이 차량들은 사할린 39여단 부대에 배치될 예정이다.

이번 차량 행진은 조국 수호자들을 지지하는 사할린과 쿠릴열도 주민들의 단결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증거가 됐다. 알레리 리마렌코 사할린주지사의 지원으로 사할린주에서는 지속적으로 특수군사작전 지역으로 인도적 지원 물자를 보내는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Массовый автопробег в честь Дня защитника Отечества прошел на Сахалине

В воскресенье, 22 февраля, массовый автопробег в честь Дня защитника Отечества прошел на Сахалине. Участие в патриотической акции в поддержку бойцов СВО приняли более 600 островитян. Среди них — представители общественных, спортивных и молодежных организаций, волонтеры #МЫВМЕСТЕ, активисты партии «Единая Россия» и обычные горожане.

Колонна из 260 машин с флагами и символикой

отправилась из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на аэродром «Пушистый», где организаторы подготовили насыщенную культурную программу и угощения.

На аэродроме «Пушистый» также состоялось вручение наград волонтерам, которые внесли большой вклад в дело поддержки 39-й отдельной гвардейской мотострелковой бригады и участников СВО и членов их семей в целом.

В завершение акции активисты группы «Сады Сахалина» передали шесть подготовленных транспортных средств для отправки в зону СВО. Все автомобили поступят на баланс подразделений 39-й сахалинской бригады.

Автопробег стал ярким подтверждением единства сахалинцев и курильчан в поддержке защитников Отечества. Благодаря поддержке губернатор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алерия Лимаренко в регионе на постоянной основе ведется работа по отправке гуманитарных грузов в зону специальной военной операции.

유즈노사할린스크 시공원에서 '마슬레니차' 축제 성황리에 마쳐

마슬레니차 주간이 2월 16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된 가운데 2월 22일(일) 유즈노사할린스크 시공원은 마슬레니차 축제를 즐기기 위해 모인 수백 명의 주민들을 위한 중심지가 되었다. 겨울을 보내는 이 축제는 전통문화 보전을 기치로 진행되었다고 유즈노사할린스크시행정부 공보실이 전했다.

행사가 공원 여러 곳에서 펼쳐져 다양한 연령대의 방문객들이 축제의 분위기에 빠질 수 있었다. 러시아 민속놀이에서 참가자들은 배계와 자루 싸움, 줄다리기, 힘겨루기, 코코쉬니크(러시아 전통 화판) 쓰고 릴레이 계주, 공놀이 등에 참가했고, 유아들을 위해서 목마와 대형 복싱 장갑이 있는 디지털 공간도 운영됐다.

축제기간 내내 '오이 마슬료나-크라소타' 짚풀 인형 전시회가 열렸고, 주민들을 위해 마슬레니차 가면과 전통모자 만들기 활동교실도 진행됐으며, 또한 국내 다양한 문화의 풍성함을 보여주는 수공예품 박람회도 열렸다. 전국 러시아 요리 축제의 일환으로 진행된 <러시아 민족들의 요리> 박람회는 마슬레니차 행사의 하나로서 다양하게 속을 채운 블리니, 전통 절임 음식, 빵을 비롯해 다과를 방문객들에게 제공했다.

축제를 마무리하며 웨르흐네에 호숫가에서 겨울과 작별하고 곧 다가올 봄을 바라는 상징으로 마슬레니차 짚풀 인형을 태우는 전통의식이 거행됐다.

유즈노사할린스크 시청에서는 이날 도심의 모든 행정구역들에서 마슬레니차 축제와 관련 행사들이 펼쳐졌다고 전했다. 이러한 시 행사들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선포한 <러시아 민족 단결의 해>에 특별한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Масленица отгремела в городском парке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С 16 по 22 февраля прошла масленичная неделя. Городской парк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стал центром притяжения для сотен горожан, собравшихся на масленичные гуляния. Праздник, посвященный проводам зимы, прошёл под знаком сохранения культурных традиций, сообщают в администрации областного центра.

Мероприятия развернулись на множестве площадок парка, предложив гостям всех возрастов погружение в атмосферу праздника. Гости участвовали в русских народных забавах: битве на мешках и подушках, перетягивании каната, испытании силы, эстафете в кокошниках, играх с мячом. Для самых маленьких работала интерактивная зона с деревянными лошадками и гигантскими боксерскими перчатками.

На протяжении всего праздника действовала выставка масленичных чучел-кукол "Ой маслена-красота", работал театр Петрушки с хороводами. Для горожан провели мастер-класс по изготовлению традиционных головных уборов и масок Масленицы. Также в парке состоялась ярмарка декоративно-прикладного творчества, демонстрируя все богатство культурного разнообразия страны.

Одной из площадок гуляний стала ярмарка "Кухня народов России", проходящая в рамках Всероссийского фестиваля русской кухни. Блины с разнообразными начинками, традиционные соленья, выпечка и другие угощения.

Завершился праздник традиционным обрядом сожжения чучела Масленицы на озере Верхнем, символизирующим прощание с зимой и надежду на скорую, теплую весну.

В мэрии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отмечают, что в этот день масленичные гуляния и тематические события прошли во всех планировочных районах областного центра.

(8면에 계속)

[KIN(지구촌동포연대)] 「사할린 동포 영주귀국 정착지원 실태조사」 연구 보고서 발간

KIN(지구촌동포연대)는 “사할린 동포 영주귀국 정착지원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1월 30일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연구는 화우공익재단의 “화우공익연구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연구 비 지원으로 이루어졌다.

이번 보고서는 사할린 동포의 영주귀국과 피해구제에 대한 원칙을 유엔(UN) 인권 가이드라인을 통해 재검토하며 일본의 중국 등 잔류방인 영주귀국 사례를 비교하여 한국 정부의 정책 공백을 지적하고, 단기~장기 개선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게다가 2월 12일 사할린동포법 개정

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제도적 전환점이 마련된 만큼, 법 개정의 효과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구현되도록 후속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 최종보고서는 홈페이지에 공개하였다.

화우공익재단에서는 최종보고서에 대한 연구결과 발표회를 3월 10일(화) 오후 3시 온라인으로 실시한다.

보고서 링크 : http://www.kin.or.kr/?page_id=8926&mod=document&uid=6291&execute_uid=6291
보고서 내용요약은 7면에 게재한다. (편집부)

사할린 한인사회계 소식

지난 주말 행사가 많았던, 한인단체

'한글'창작회, 아니와와 코르사코브에서 음력설 맞아 활동교실 펼쳐



'한글'창작회(지도 배영희)는 이미 여러 해 사할린 주민들에게 한민족 문화를 보급하고 있다. '한글'창작회는 여러 형태의 활동을 펼치며, 대중행사에도 참가하고 자체적으로 한민족축제, 공예 활동교실, 한글 쓰기 또는 한식 요리교실, 다도 등 열고, 다양한 교육기관에서 한국어와 한민족 문화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한다.

얼마전에 사할린의 경계를 넘어 '한글 창작회'는 모스크바의 한 박물관에서 한복 종이접기 활동교실과 한복 입어보기 체험을 진행하기도 했다.

올해 창작회는 새로운 기획인 '나의 할머니의 이야기들'이란 축제를 진행하고 있다.

'한글'창작회는 특히 음력설 시기에 한민족 문화를 알리는 행사를 많이 열고 있다.

지난 17일에는 아니와 어린이 창작회관에서 지속적으로 해온 '한민족 전통체험'축제의 일환으로 음력설 축하카드 쓰기, 한복 종이접기, 종이 복주머니 등 활동교실을 진행했다.

코르사코브 제2중학교와 많은 교류를 해온 '한글'창작회는 2월 20일 이곳에서도 역시 음력설 관련 다양한 활동교실을 진행했다.

우글레고스크 시한인회, 설맞이 개최

사할린주 한인회 소속 우글레고스크시한인회(회장 유경숙)의 주최로 4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지난 21일(토) '서울' 레스토랑에서 음력설 행사가 열렸다. 참석자들은 맛있는 명절음식을 먹으며 즐겁게 시간을 보냈다. 주최 측에 따르면 이날 행사를 찾아온 1세 어르신들에게는 주한인회에서 준비한 선물세트도 전했다.



사할린한인연합회, '마슬레니차'행사 진행



사할린한인연합회(회장 고영순)의 임원들은 지난 21일(토) 사무실과 행사장으로 임대한 공간에서 약 50여 명이 모인 가운데 '마슬레니차 (겨울 전승)'행사를 개최했다. 수많은 블리닉에 손님들이 가져온 잼, 반찬 등이 더해져 참석자들이 따뜻한 분위기속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고 전해졌다.

사할린주 한인회, '아니와 물고기' 미식축제 참가

지난 22일(일) 아니와 시 중앙광장에서 제4회 '아니와 물고기' 미식축제가 펼쳐졌다. 아니와 시행정부가 주최한 이번 행사는 한편 마슬레니차 행사 일환, 2월 23일 조국 수호자의날 맞아 진행되었다.



해마다 이 행사에 사할린주한인협회(회장 박순옥)의 팀이 참여하여 맛있는 나와가 찌개를 끓여 제공하고 있다. 아니와 시장 스웨틀라나 쉬웨츠는 이번에도 역시 맛있었다고 전했다.

유즈노사할린스크시한인회, <사할린 얼음>축제에서 떡을 나눠

유즈노사할린스크시한인회(회장 림종환)의 팀이 지난 21일(토) 나이바 강에서 펼쳐진 대규모 <사할린 얼음>축제에 참가했다. 회원들은 이날 밀가루 반죽과 팔소로 만든 찐빵 200개를 팔았다. 시한인회 박 웨니아민 부회장에 따르면 "찐빵이 맛있어서 인기가 너무 많아 금방 팔렸다."고 했다. 그외 시한인회 팀은 여러 즐거운 게임과 경기에 도전해 보면서 활기찬 축제에 만족을 표했다. (배순신 기자)

허진원의 <사랑하기 좋은 날>

아무르 강가에서 / 박정대

그대 떠난 강가에서
나 노을처럼 한참을 저물었습니다
초저녁별들이 뜨기엔 아직 이른 시간이어서, 낮이
밤으로 몸 바꾸는 그 아득한 시간의 경계를
유목민처럼 오래 서성거렸습니다

그리움의 국경 그 허술한 말뚝을 넘어 반성도 없이
민가의 불빛들 또 함부로 일렁이며 돌아나고 발밑으로는
어둠이 조금씩 밀려와 채이고 있었습니다, 발밑의 어둠

내 머리 위의 어둠, 내 늑골에 첩첩이 쌓여 있는 어둠
내 몸에 불을 밝혀 스스로 한 그루 촛불나무로
타오르고 싶었습니다

그대 떠난 강가에서
그렇게 한참을 타오르다 보면 내 안의 돌멩이 하나
뜨겁게 달구어져 끝내는 내가 바라보는 어둠 속에
한 떨기 초저녁별로 피어날 것도 같았습니다

그러나 초저녁별들이 뜨기엔 아직 이른 시간이어서
야광나무 꽃잎들만 하얗게 돌아나던 이 지상의 저녁
정암사 적멸보궁 같은 한 채의 추억을 간직한 채
나 오래도록 아무르 강변을 서성거렸습니다
별빛을 향해 건다가 어느덧 한 떨기
초저녁별로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아무르 강이라면 저도 꼭 한 번쯤 여행하고 싶었던 엄청난 강, 네, 그 강 맞습니다. '아무르'라면 사랑이라는 뜻일 텐데, 이 길고 긴 강의 이름을 왜 '사랑의 강'이라고 지었을까, 일단 저는 이런 고민에 빠져드네요. 어쩐지 사랑의 달콤함보다는 구비구비 이어질 듯 이어지지 않을 것만 같은, 그렇지만 한 편으로는 또 끊어질 듯 끊어지지 않을 것만 같은 '미련'이나 '회한'이 떠오르네요. 양지은이 부른 '초혼'의 노랫말을 떠올리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원래는 장운정 노래였나?



사랑이란 남녀간의 사랑만 있는 게 아니라, 부모님의 자식에게 보내준 지극정성의 사랑, 나아가 조건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는, 아, 너무 트루트에 그간 빠져 있었나, 아무튼, 막 막 무조건 주는 초월적 사랑인 아가페적인 사랑 등, 역시 다양할 텐데요.

아무르 강가에서 어쩐지 해질녘의 그 느낌, 빛과 어둠이 교차하는 시점, 그러니 좀 더 나아가 산 자와 죽은 자의 경계를 떠올리는 시인의 시선이 어쩐지 시를 읊미하는 제 어깨까지도 으스스 떨리게 만드네요. '스산함'이 느껴지는 시를 읊미하면 정말로 어깨가 추워지는데, 여름 날 정오 쬐에 읽을 걸!

좋은 시는 시인의 개인적인 시선을 늘 벗어납니다. 생각할 게 많이지거든요. 저 역시 아무르 강가 어딘가에 쓸쓸히 서 있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바바리 코트의 목깃을 올리고, 호주머니에 손을 푹 넣은 채, 바람이 제 깃가를 스치겠지만, 아, 화보처럼 근사할 것 같지만, 사실은 배는 나왔고, 머리카락은 점점 더 빠지는 추세에, 어쩐지 콧물도 흘쩍이고 있을 것만 같습니다. 제가 추위라면 질색인 편이라, 흠. 저 머니면 아무르 강의 스산함을 떠올리다보니, 이제 그만 보르슈(борш)가 팽기네요. 아, 따뜻한 보르슈(борш)에 꼬냑(коньяк)이라면 괜찮을 것 같은데. 연어 알(икра лосося)도 추가해야겠지요, ㅋ.”

(서울에서 허진원)

현재 한국 국가보훈부 독립유공자는노령계열 175명이며 그중 후손 확인을기다리는 독립유공자 137명이다.

김봉순

관리번호	952658 후손 확인이 필요한 독립유공자		
성명	김 봉 순	한자	
이명	없음	성별	남
생년월일	미상	사망년월일	1921-12-04
본적	미상		

공훈록

1921년 3월 이후 서간도 군비단(軍備團)은 본거지인 길림성(吉林省) 장백현(長白縣)을 떠나 이만에 집결했다. 이후 자유

광복 80주년 맞아

후손 확인을 기다리는 러시아지역 독립유공자

시참변(自由市慘變)을 피해 각지로 분산한 군인들 가운데 연해주에 모인 상해파 인사들과 연합해 독립군을 양성했다. 이들은 1921년 9월 이만에서 고려의용군사회의를 조직하고 산하에 사관학교를 설립했다. 사관학교에서 교육받은 생도들을 토대로 대한의용군을 조직했다.

1921년 말 이만 남쪽 스키아스크에 주둔하고 있던 일본군과 러시아 백군은 하바롭스크를 향해 대대적인 공세를 시작했다. 첫 공격지점은 이만이었다. 1921년 12월 4일 대한의용군 제2중

대는 이만을 방어하기 위해 이만전투에 참가했다. 이 전투에서 제2중대는 일본군의 지원을 받는 백군과 전투를 벌이다 3명의 생존자를 제외하고 전원 전사했다. 대한의용군 제2중대 대원 김봉순도 이 전투에서 전사 순국했다.

정부는 2020년에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10월혁명 10주년과 쏘베트고려민족(십월혁명십주년 원동 기념준비위원회 편찬, 1927) 70~75면
- 「러시아혁명기 원동해방전쟁과 한인부대의 활약」 (윤상원, 한국근현대사연구, 한국근현대사학회, 2013), 667~676면

묘소 위치 확인이 필요한 독립유공자

(편집 이철수)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Соллаль: игры предков»: праздник, объединивший поколения на Сахалине

21 февраля в корейском культурном центре на Сахалине впервые прошел фестиваль национальных игр «Соллаль: игры предков», приуроченный к встрече Нового года по лунному календарю. Организаторами выступили Сахалинское отделение Всемирного сообщества корейских женщин (KOWIN) и Центр просвещения и культуры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С приветственным словом к гостям обратились руководитель отделения KOWIN Наталья Че и директор Центра просвещения Чон Сын Хун. Они поздравили всех с наступившим Новым годом и подчеркнули важность сохранения народных традиций. Для господина Чон Сын Хуна этот праздник стал особенным: в связи с окончанием срока полномочий он покидает остров, и фестиваль оказался одним из последних и самых запоминающихся событий на Сахалине.

Перед началом состязаний главный научный сотрудник областного художественного музея Ольга Хай познакомила гостей с обычаями празднования Соллалля. А специальный корреспондент КТВ «Урималь бансон» Ольга Ри провела веселый интерактив: все вместе разучивали корейские приветствия и учились правильно поздравлять друг друга с Новым годом.

Наконец настало время главного события — традиционных игр! Команды собрались самые разные: семейные, профессиональные, компании друзей и знакомых. Самому юному участнику едва исполнилось 6 лет, а самым опытным — за 70. И стар, и млад с азартом осваивали чеги чаги, бисок чиги, ттакти, тухо и конги нори. Звонкий смех не стихал ни на минуту.

— Очень весело! В следующий раз обязательно зовите! — не скрывая эмоций, делились участники. — Даже не



представляла, что можно так интересно провести время!

Ярким украшением вечера стали выступления ансамбля корейских ударных инструментов «Тэян» (ДШИ «Этнос») и ансамбля корейского танца «Химанг» при ККЦ.

Организаторы признаются: этот праздник подготовил новый, молодой актив сахалинского отделения KOWIN при поддержке волонтеров. А спонсоры мероприятия помогли воплотить в жизнь практически все задумки.

Главный приз — сертификат в ресторан корейской кухни на 7 тысяч рублей — заслуженно достался команде «Детки-конфетки».

— Этот праздник доказал: традиции живы, пока в них играют, пока они интересны и детям, и взрослым, — поделилась Наталья Че. — Мы играли в те же игры, что и наши предки, и почувствовали себя одной большой семьей. Вместе мы сделали этот день ярким и душевным.

Виктория БЯ

«Хангыль» знакомит сахалинцев с корейской культурой

Интерес к культуре Южной Кореи сегодня переживает настоящий бум. К-поп музыка и дорамы открыли для многих дверь в удивительный мир, но по-настоящему прикоснуться к живым традициям позволяют мастер-классы, где участники погружаются в национальную культуру.



Творческое объединение «Хангыль» работает в этом направлении не первый год. Формы работы самые разные: культурно-образовательный десант «Халлю», участие в городских праздниках, совместные проекты с общественниками, День единого фольклора, национальные праздники — всё это неизменно находит отклик у публики.

Особый интерес вызывают занятия по древнему искусству складывания бумаги «чони чопки». В отличие от привычного японского оригами, корейская техника имеет свои уникальные приемы. Под руководством мастеров участники создают традиционные костюмы, пред-

меты быта и украшения. Не так давно «Хангыль» провел в одном из музеев Москвы мастер-класс, посвященный ханбоку — традиционному корейскому наряду. Гости не только своими руками смастерили бумажную модель костюма, но и смогли примерить настоящий ханбок, погрузившись в атмосферу творческого вечера.

В этом году «Хангыль» запустил новый проект — фестиваль «Истории моей бабушки». На его встречах гости знакомятся с традициями и узнают много нового об истории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Для тех, кому интересна письменность, проходят занятия по хангылю: все желающие учатся писать

свои имена на корейском и создают памятные открытки с народными пословицами. Участники отмечают, что процесс не только познавательный, но и очень успокаивающий.

Особый размах праздник обретает в канун Нового года по лунному календарю. В эти дни Детский дом творчества в Аниве становится местом притяжения для детей и взрослых. В рамках фестиваля корейских традиций здесь знакомятся с обычаями главного праздника: пишут пожелания счастья на открытках, мастерят конверт «Покчумони» — оберег на весь год, создают в технике оригами костюмы с традиционным орнаментом. А на мастер-классе «Традиции и секреты корейского чаепития» гости узнают о национальных угощениях и правилах этикета.

Многолетнее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связывает «Хангыль» со средней школой № 2 Корсакова.

(Продолжение на странице 5)

Ким Чен Ын переизбран Генеральным секретарем ТПК и обновил правящую элиту

На четвертый день работы IX съезда Трудовой партии Кореи Ким Чен Ын был единогласно переизбран генеральным секретарем партии — высшая должность в политической системе КНДР. Все это сопровождалось массовыми и весьма серьезными перестановками в ЦК партии, где на руководящие посты были выдвинуты новые лица, считающиеся "людьми Ким Чен Ына", взамен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предыдущих поколений. Это, а также ряд других заметных деталей позволили говорить о том, что съезд обозначил новую линию развития, когда Ким Чен Ын вышел из тени своих предшественников-вождей и вступил в полноценную "собственную эпоху" — с новой линией в идеологии, военного, политического и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Ким — снова Генеральный секретарь партии и "новая эпоха"

Главным ожидаемым кадровым решением стало переизбрание Ким Чен Ына на высший партийный пост генерального секретаря ТПК. Резолюция была принята на заседании 22 февраля и, как сообщило Центральное телеграфное агентство Кореи, получила единогласную поддержку делегатов съезда.

Особое внимание наблюдателей привлекли заявления партийного секретаря Ли Иль Хвана, представившего предложение о переизбрании лидера. Он заявил, что "наступила эпоха, когда больше нет необходимости обсуждать, что важнее — оборона или экономика". По его словам, попыткам враждебных сил поставить КНДР перед выбором между безопасностью и развитием "полностью положен конец" и "никакие угрозы и санкции больше не действуют на страну". По утверждению Ли, мир признал КНДР "опасным противником, которого нельзя игнорировать". Все эти достижения были связаны с личностью Ким Чен Ына, которого и переизбрали генсекретарем.

В принятом решении также указывается, что под руководством Ким Чен Ына страна сумела создать вооруженные силы, способные "активно противостоять любой угрозе и подготовленные к войне любого типа". Отдельно проводится линия о необратимости ядерного статуса КНДР и подчеркивается, что "ядерные силы КНДР стали основой качественно возросшего потенциала сдерживания государства".

Характерно, что в речи, посвященной переизбранию, выделялась роль и беспрецедентные успехи Ким Чен Ына даже на фоне вождей-предшественников: "Одержав великую победу, которой не было за всю пятидесятилетнюю историю и которая ясно отличается даже от 75 лет после освобождения, [мы] породили новую эпоху", — говорится в решении.

Отдельным решением съезда в партийный устав были включены провозглашенные Ким Чен Ыном в 2022 году "пять линий партийного строительства новой эпохи". Речь идет о курсе на укрепление единой системы руководства, усиление идеологического контроля, обновление кадровой структуры, ужесточение партийной дисциплины и повышение эффективности работы партийных органов. Фактически эти положения закрепляют модель управления, выстроенную нынешним лидером, в качестве постоянной основы функционирования правящей партии.

Наблюдатели обратили внимание и на символические изменения. Многие выступавшие носили значки с изображением Ким Чен Ына, тогда как сам лидер появился с традиционным значком с портретами Ким Ир Сена и Ким Чен Ира. Кроме того, отмечается, что во вступительной части выступления Ким Чен Ын, в отличие от предыдущих съездов, не начал речь с

оборота, означающего максимальное почтение предшественникам. Эксперты рассматривают это как признак постепенного формирования самостоятельной политической идентичности нынешнего лидера.

Масштабная смена элит: без двух маршалов, без Чхве Рён Хэ, без южнокорейского направления и с новым руководством

Наступление нового периода в развитии КНДР в полной мере нашло отражение и в кадровых перестановках. В новый состав Центрального комитета ТПК избраны 138 членов и 111 кандидатов, при этом более половины состава обновилось по сравнению с предыдущим съездом. Как подсчитали эксперты из Южной Кореи, 51 человек был напрямую включен в Центральный комитет без прохождения промежуточных ступеней, что свидетельствует о формировании новой элиты — "поколения Ким Чен Ына".

Наиболее заметным событием стало исключение из Центрального комитета Чхве Рён Хэ — одной из ключевых фигур режима и представителя поколения "партизанских наследников". В последнее время он занимал пост председателя Постоянного комитета Верховного народного собрания (парламента) КНДР и входил в состав Президиума Политбюро ЦК ТПК. Чхве играл активную роль на переговорах с США, долгое время его считали вторым по влияемости в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иерархии Страны чучхе, уступая лишь самому Ким Чен Ыну. Выведение из ЦК ТПК означает, что Чхве не будет занимать ключевых постов и уйдет на второй план.

Также из руководящих органов выведены влиятельные военные деятели — маршалы Пак Чон Чхон и Ли Бён Чхоль, долгое время считавшиеся ключевыми фигурами военной политики. Это не опала, не наказание, но все выглядит как отправка на почетную пенсию и выведение на первый план людей нового поколения. В военной сфере выдвинулись люди, отвечающие за разработку новых видов вооружений, что также хорошо характеризует приоритеты Ким Чен Ына.

Состав нового руководства показал и изменение внешнеполитических векторов. Из партийных органов исчезли многие специалисты по межкорейскому направлению, например Ли Сон Гвон и Ким Ён Чхоль, традиционно занимавшиеся диалогом с Сеулом. Это рассматривается как подтверждение сохранения жесткой линии Пхеньяна и закрепления концепции существования двух отдельных государств на полуострове.

Съезд как начало новой эпохи

Появившиеся сегодня из Пхеньяна новости дали обширную пищу для размышления и анализа зарубежным экспертам по КНДР. Основной вывод заключается в том, что Ким Чен Ын де-факто объявил новую эпоху своего правления. Это эра, когда Ким уже окончательно вышел из тени предыдущих вождей — своего деда Ким Ир Сена и отца Ким Чен Ира — и идет собственным путем. Новые этапы стратегии развития объявлены по всем направлениям — в идеологии, организационно-партийном направлении, в военной, экономической, внешнеполитической и прочих областях. Это сопровождается и появлением символов новой эпохи — от получивших теперь широкое распространение значков с изображением только Ким Чен Ына до иных оборотов, высказываний, а также признания успехов, которые ставятся выше достижений предшественников и объявлены эпохальными.

(Продолжение на странице 6)

О Корее и корейцах

Ли Чжэ Мён: Граждане РК за нормализацию рынка недвижимости

Граждане страны решительно поддерживают меры по нормализации рынка недвижимости, особенно в столичном регионе, где ситуация особенно сложная. Об этом президент РК Ли Чжэ Мён написал 24 февраля в своём аккаунте в социальной сети X. Рынок жилья должен вернуться к нормальному состоянию, а ориентиром для власти должны быть интересы общества, а не личные амбиции чиновников. Государство располагает инструментами для стабилизации ситуации, включая налоговую политику, финансовые механизмы и контроль предложения на рынке, — подчеркнул глава государства. Он напомнил, что владение несколькими объектами недвижимости или покупка жилья в инвестиционных целях — свободный выбор граждан. Однако для них должна быть отдельная налоговая политика.

США ввели глобальные пошлины в размере 10%

24 февраля вступили в силу новые глобальные пошлины, введённые президентом США Дональдом Трампом. Они составляют 10%, затрагивая в основном сырьё, необходимое для американской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товары, уже подпадающие под отраслевые пошлины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Законом о расширении торговли, и товары, которые могут способствовать инфляции. Исключения составляют некоторые критически важные минералы, энергоносители и энергетические продукты, а также природные ресурсы, не выращиваемые и не добываемые в США. Кроме того, не облагаются пошлинами некоторые сельскохозяйственные продукты, такие как говядина, помидоры и апельсины, фармацевтические препараты и их ингредиенты, некоторые электронные изделия, легковые автомобили, грузовики и автобусы, их комплектующие, а также некоторые комплектующие для аэрокосмической техники. Эти пошлины будут действовать до 24 июля. Раздел 122 Закона о торговле, который обеспечивает правовую основу пошлин, разрешает их применение в течение максимум 150 дней без одобрения Конгресса.

РК и Монголия договорились активизировать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23 февраля в Сеуле состоялись переговоры первого заместителя министра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РК Пак Юн Чжу и заместителя министра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Монголии Гомбосурэна Амартувшина. Дипломаты обсудили состояние и перспективы развития двусторонних отношений, а также подтвердили намерение активизировать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в различных сферах. В частности, речь шла о формировании системы взаимодействия в области поставок критически важных минералов. Стороны также договорились расширять культурные и гуманитарные обмены с целью укрепления взаимопонимания между народами двух стран. В ходе встречи состоялся обмен мнениями по региональной повестке, включая ситуацию на Корей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 Достигнута договорённость о проведении в текущем году первого стратегического диалога на уровне заместителей министров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РК и Монголии. Диалог будет посвящён вопросам стратегического партнёрства, а также региональной и международн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9 из 10 зарубежных фанатов BTS изучают корейский язык

93,4% зарубежных фанатов BTS имеют опыт изучения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Об этом свидетельствуют результаты опроса 381 поклонника группы из 69 стран, включая США, Филиппины, Индию и Канаду. Опрос проводился на базе крупнейшего онлайн-сообщества фандома BTS. Его результаты опубликованы 16 февраля Корейским институтом мультикультурной конвергенции. 7,8% изучавших язык посещали очные занятия, тогда как большинство предпочли самостоятельное обучение с использованием мобильных приложений и видеоматериалов в интернете. Основным мотивом изучения языка был назван интерес к K-поп и творчеству артистов. Такой ответ дали 70,6% опрошенных. 54% респондентов изучают корейский язык менее года. Уровень владения языком у большинства остаётся начальным: 27% умеют читать и писать на хангыле, а 30% имеют первый уровень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теста на знание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TOPIK.

У группы BLACKPINK более 100 млн подписчиков на YouTube

Число подписчиков на канал южнокорейской группы BLACKPINK на YouTube превысило 100 млн. Как сообщил представитель глобальной видеоплатформы, данный рубеж достигнут через 9 лет и 8 месяцев после запуска канала группы в июне 2016 года.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на канале BLACKPINK размещено 648 видеороликов. YouTube удостоил BLACKPINK специальной награды Red Diamond Creator Award. «Динамичная женская группа BLACKPINK завоевала международное признание на YouTube благодаря своим мегахитам и ярким выступлениям», — говорится в официальном блоге YouTube. Девять видеоклипов BLACKPINK, включая DDU-DU DDU-DU и Kill This Love, попали в «Клуб миллиарда просмотров» на YouTube. Кроме того, три из них вошли в десятку самых просматриваемых музыкальных видео за последние 24 часа после релиза.

RKI

Посольство России в Сеуле отказалось снимать баннер "Победа будет за нами"

Размещение посольством России в Сеуле на фасаде баннера "Победа будет за нами" вызвало неадекватную реакцию в южнокорейских СМИ и МИД страны. Власти РК попытались оказать давление на посольство, несмотря на дипломатический иммунитет представительства, но дипломаты РФ отказались снимать баннер. Эпизод произошел на фоне слухов о возможном участии Южной Кореи в программах закупки оружия для Украины, что спровоцировало жесткие предупреждения со стороны МИД России.

Как сообщили местные издания, на здании российского диппредставительства в районе Чондон Сеула появился 15-метровый крупный баннер с надписью "Победа будет за нами". Согласно опубликованным фотографиям, лозунг размещен вертикально — от крыши пятиэтажного здания до уровня второго этажа. В верхней части баннера изображены цвета российского триколора, ниже на красном фоне белыми буквами нанесена сама надпись. Баннер хорошо просматривается с улицы и сразу привлек внимание прохожих и журналистов, а также вызвал волну комментариев со стороны местных изданий.

Южнокорейские СМИ отметили, что данный лозунг использовался как во времена Второй мировой войны, так и после начала специальной военной операции на Украине в 2022 году. В этой связи ряд изданий предположил, что размещение баннера может быть приурочено к четвертой годовщине начала СВО.

После появления баннера министерство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довело до российской стороны свою позицию. При этом в публикациях СМИ РК возникла некоторая путаница формулировок: одни источники сообщали о требовании снять баннер, другие — о выражении "обеспокоенности" в связи с его размещением. В Сеуле заявили, что подобные действия способны вызвать "ненужные недоразумения и напряженность", учитывая присутствие в стране украинской дипломатической миссии. Некоторые источники также сообщили, что в МИД Южной Кореи также обратились

и представители антироссийски настроенных посольств стран ЕС, потребовав добиться снятия лозунга.

Отметим, что недавно посол России в Сеуле Георгий Зиновьев в интервью СМИ искренне поблагодарил бойцов КНДР, которые, проливая свою кровь, оказали помощь при освобождении Курской области от ВСУ. Согласно информации некоторых СМИ, МИД РК выразил озабоченность и в связи этими высказываниями, хотя формально Сеул не является участником конфликта.

Несмотря на давление, посольство России отказалось снимать баннер, который остается на своем месте. При этом большие вопросы вызывают действия южнокорейской стороны с правовой точки зрения. Как подчеркивают сами южнокорейские СМИ, власти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не обладают правовыми основаниями требовать его демонтажа, поскольку согласно статье 22 Венской конвенции о дипломатических сношениях территория дипломатического представительства является неприкосновенной и не подлежит вмешательству принимающего государства. Кроме того, как указывают наблюдатели, МИД Южной Кореи в свое время спокойно воспринял размещение на фасаде посольства США символов ЛГБТ, несмотря на протесты многих корейцев.

Ситуация развивается на фоне появившихся в СМИ слухах о возможном участии Южной Кореи в программе PURL, предполагающей финансирование закупок вооружений для Украины через третьи страны. Согласно некоторым данным, об этом Сеул попросили представители НАТО. Официальный представитель МИД России Мария Захарова заявила, что Москва примет ответные меры в случае присоединения Сеула к подобным схемам. По ее словам, такие шаги "лишь отдаляют перспективы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конфликта" и могут нанести серьезный ущерб российско-южнокорейским отношениям. В МИД РК после прокомментирования, что пока их позиция остается неизменной: они готовы помогать Киеву, но только гуманитарными и экономическими поставками, а не боевой техникой или боеприпасами.

(Олег Кирьянов, РГ)

Суд вновь рассмотрит дело экс-президента Южной Кореи Юн Сок Ёля

Бывший президент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Юн Сок Ёль подал апелляцию на вынесенный ранее приговор, согласно которому он был признан виновным в руководстве мятежом и приговорен к пожизненному лишению свободы. Также потребовало нового рассмотрения и обвинение, считая, что Юн должен быть наказан смертной казнью. Таким образом, дело вновь будет рассмотрено судом более высокой инстанции.

Как мы и предполагали ранее, приговор экс-президенту РК Юн Сок Ёлю не устроил ни одну из сторон, и обе потребовали повторного рассмотрения. Как стало известно, 24 февраля апелляция была подана от имени бывшего главы государства, после решения Центрального районного суда Сеула, признавшего Юн Сок Ёля виновным в организации мятежа в связи с введением военного положения 3 декабря 2024 года. Суд первой инстанции пришел к выводу, что действия Юна подпадают под юридическое определение мятежа и нанесли серьезный ущерб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м институтам и Национальному собранию.

Защита политика заявила, что намерена оспорить выводы суда, указав на ошибки в установлении фактов и неправильное применение законодательства. В заявлении адвокатов говорится о необходимости "зафиксировать недостатки судебного решения не только перед судом, но и перед историей". Представители Юна также утверждают, что обвинение было чрезмерным, а сам процесс носил политически мотивированный характер.

Сам бывший президент ранее заявил, что не согласен с трактовкой суда, согласно которой направление военных подразделений к зданию парламента можно считать мятежом. По его словам, решение о введении военного положения принималось "исключительно ради страны и народа", хотя он и принес извинения гражда-

нам за вызванные этим событиями потрясения.

Одновременно апелляцию подала и сторона обвинения. Специальный прокурор выразил недовольство вынесенным приговором и требует ужесточения наказания до смертной казни.

Можно предположить, что в любом случае дело на этом не закончится и как минимум одна из сторон оспорит приговор и апелляционный суд. Это будет означать, что финальную точку сможет поставить только третья, итоговая инстанция, а именно Верховный суд РК, чей приговор уже будет окончательным и без возможности обжалования. Ожидается, что до получения этого вердикта в общей сложности пройдет еще несколько месяцев.

На фоне этих судебных разбирательств правящая Демократическая партия "Тобуро" стала продвигать законопроект о внесении изменений в законодательство об амнистии. Инициатива направлена на ограничение возможности помилования лиц, осужденных за мятеж или государственную измену. В случае принятия закона Юн Сок Ёль может фактически лишиться шансов на досрочное освобождение и провести остаток жизни в заключении.

Оппозиционная партия "Сила народа" выступила резко против инициативы, обвинив правящие силы в политическом преследовании и попытке закрепить наказание бывшего президента на законодательном уровне.

Отметим, что до этого в Южной Корее бывших президентов неоднократно отправляли в тюрьму после завершения срока полномочий, были и случаи приговоров к высшей мере, однако все они в итоге проводили в тюрьме лишь несколько лет, выходя на свободу по амнистии.

(Олег Кирьянов, РГ)

«Хангыль» знакомит сахалинцев с корейской культурой

(Окончание. Начало на странице 4)

И это не просто дружба и искренний интерес педагогов и учеников, но и глубокий символизм.

Корсаков — колыбель истории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место, откуда она берёт своё начало.

Обелиск на горе Печали стал тем самым знаком, откуда простирается память о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ах.

Сегодня работа творческого объединения «Хангыль» доказывает: корейская культура — это не только громкие ритмы поп-музыки, но и глубокие традиции, которые можно изучить, создать своими руками и увезти с собой уникальный сувенир.

Руководитель объединения «Хангыль» Анжела ПЕ

В День защитника Отечества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состоялась церемония возложения цветов к Вечному огню

В День защитника Отечества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состоялась церемония возложения цветов к Вечному огню. В мероприятии принял участие председатель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лексей Белик.

Несмотря на дождь и сильный ветер, на площади Славы у памятника воинам, павшим в боях за освобождение Южного Сахалина и Курильских островов, собрались сотни жителей и гостей области. Пришли представители органов исполнительной власти федерального, регионального и муниципального уровней, депутаты, командование и военнослужащие 68-го гвардейского армейского корпуса, ветераны, сотрудники силовых структур, участники военно-патриотических объединений и общественных организаций.

Собравшиеся минутой молчания почтили память защитников Отечества, павших за свободу и независимость Родины.

Житель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Василий Андреев участвовал в освобождении Южного Сахалина, в 1945 году служил в экипаже десантного корабля.

Для меня День защитника Отечества – святой праздник. Его нельзя назвать чисто мужским. Потому что рядом с нами служили женщины, они очень неплохо воевали, честно выполняли свой долг. Родина у нас у всех – мужчин и женщин – одна, и ее надо защищать, – сказал ветеран.

Мероприятия, посвященные Дню защитника Отечества, прошли во всех муниципальных образованиях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Более 1,5 тысячи человек стали гостями всероссийского фестиваля «СВОих не бросаем»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отгремел музыкальный фестиваль «СВОих не бросаем». Всероссийское патриотическое мероприятие проводится ежегодно в преддверии Дня защитника Отечества в поддержку участников специальной военной операции.

Островной регион — место боевой славы. Именно здесь была поставлена точка во Второй мировой войне. Предложение губернатора Валерия Лимаренко проводить фестиваль военно-патриотической песни именно на Сахалине поддержали российские артисты и Администрация Президента РФ.

— Уже в четвертый раз фестиваль «СВОих не бросаем» проходит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Это старт большого тура концертных проектов по всей стране в поддержку специальной военной операции и ребят, которые отдают свой долг Родине. Мы говорим спасибо всем, кто сейчас на фронте, и ветеранам, собравшимся в зале. Этот концерт прежде всего для них. На этой сцене выступают деятели культуры, которые заявили свою гражданскую и патриотическую позицию с самых первых дней СВО. Отдельное спасиб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Именно по инициативе губернатора региона поздравлять ветеранов и участников специальной военной операции начинают с Сахалина, с самого востока нашей необъятной Родины, — подчеркнул заместитель начальника Управления Президент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по общественным проектам Александр Журавский.

Председатель региональн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Алексей Белик отметил, что патриотический фестиваль — важная составляющая работы региона по поддержке героев:

— Островные воины вместе с жителями других регионов России самоотверженно сражаются в зоне СВО. Концерт «СВОих не бросаем» проводится для бойцов, которые с честью отдают долг Родине. Сегодня в зале присутствуют ветераны и действующие воины, их семьи. Они заслужили этот праздник. Желаем нашим защитникам удачи и скорейшего возвращения домой с победой! — сказал он.

Традиционно на фестивале выступили российские и сахалинские артисты, которые регулярно выезжают в прифронтовую зону и оказывают поддержку бойцам и их семьям.

— Еще до начала СВО мы увидели ужасную трагедию в Донбассе. Мы поддерживаем мирных жителей и наших защитников. Ежегодно принимаем участие в фестивале «СВОих не бросаем», который проходит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Такого мощного состава участников мы не встречали нигде. Здесь мы чествуем наших славных защитников. Те, кто на передовой, — это самые лучшие, самые отважные люди, которые считают за честь проливать кровь за Родину, которые ничего не боятся. И по-

беда будет за нами! — поделился лидер группы «Зверобой» Александр Носков.

На сцену также вышли исполнители из Донецка и Луганска — Руслан Осташко и группа «НАШИ», группа «123 полк», Сергей Нихаенко. Артисты исполнили хиты о силе русского народа и подвигах нашей армии. Прозвучала и песня «Сахалин и Курилы», написанная островным композитором Георгием Зобовым к 80-летию памятных событий на острове Шумшу.

Отметим, билеты на концерт распределяли общественные организации, которые оказывают поддержку ветеранам боевых действий и их семьям, — региональные отделения Фонда «Защитники Отечества», Комитета семей воинов Отечества, островные ассоциации ветеранов и волонтеров СВО. Главными гостями фестиваля стали участники спецоперации, их семьи и люди, которые активно помогают фронту.

— Я два года пробыл в зоне специальной военной операции, был демобилизован. Сейчас работаю в Фонде «Защитники Отечества» координатором по городу Макарову — помогаю нашим парням, их женам, матерям. Этот концерт нужен — он поддерживает пацанов, вдохновляет их. Таких мероприятий должно быть как можно больше! — поделился ветеран специальной военной операции Николай Вылегжанин.

Телеверсию фестиваля «СВОих не бросаем» показали в эфире «Первого канала» 22 февраля в 23:00.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вошла в топ-5 Национального рейтинга качества жизни АСИ

Итоги подвели на заседании Наблюдательного совета Агентства стратегических инициатив (АСИ) при Президенте РФ Владимире Путине. В мероприятии принял участие губернатор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По итогам 2025 года регион поднялся в рейтинге с седьмого на пятое место, впервые войдя в топ-5. А региональный проект «Счастливое материнство» вошел в портфель лучших практик АСИ.

Национальный рейтинг качества жизни АСИ формируется на основе 149 показателей и 12 направлений. Среди них образование, охрана здоровья, социальная защита, экология, безопасность, досуг, транспорт, благоустройство, жилье, материальное благополучие, работа, народосбережение. Оценка формируется на основании опросов самих жителей регионов.

— Лучшие практики нужно распространять, включать в региональные программы повышения рождаемости. Важнейшую роль в демографической повестке должны играть и работодатели, поскольку достойный, стабильный доход, социальный пакет, удобный график — это дополнительные стимулы для работающих родителей строить большую многодетную семью. В этой связи важно, что число маленьких детей — до шести лет — у сотрудников компании или предприятия будет учитываться в Стандарте общественного капитала бизнеса. Этот документ сформирован по инициативе агентства и утвержден Правительством, — сказал Владимир Путин.

На Сахалине и Курилах с начала 2026 года родилось 465 малышей — их можно назвать детьми проекта «Счастливое материнство». Губернатор запустил его в марте 2025 года и поставил задачу — повысить рождаемость на островах.

Для этого организовали индивидуальное сопровождение беременных женщин по медицинским и бытовым вопросам. Предусмотрели адресную поддержку будущим мамам. Создали институт профессиональных нянь и начали компенсировать родителям часть затрат на услуги помощницы.

Вместе с бизнес-объединениями сформировали новые корпоративные ценности, где поощряется рождение детей у сотрудниц. Работодатели формируют для мам карьерные планы, предлагают возможность удаленной работы и повышение квалификации.

— У женщины появляется уверенность в завтрашнем дне. В том, что она преодолет все трудности, связанные с уходом за ребенком. Меняется сама культура отношения к женщине, появляется поддержка со стороны общества. Получили первые результаты: на островах выросло количество беременных женщин — на 230 человек по итогам 2025 года, в сравнении с 2024-м. Эти цифры могут показаться небольшими, но они очень важные для нас, — подчеркну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 В рамках той работы, которая ведется ежегодно с регионами, с губернаторами, появляются субъекты, которые быстро растут, показывают динамику. Мы видим, как реги-

оны используют лучшие практики, обмениваются, обучают региональные команды друг у друга, смотрят, где проблемные зоны, где точки роста.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в этом году вошла в категорию лидеров динамики роста и стала одним из лучших регионов в вопросах поддержки семей с детьми, — рассказала глава АСИ Светлана Чупшева.

Кроме тог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уже третий год входит в топ-4 самых инвестиционно-привлекательных регионов России. А ранее АСИ назвало островную медицину самой доступной в стране и отметило практики социальной поддержки инвалидов. Сахалинский проект по их обеспечению техническими средствами реабилитации вошел в портфель лучших практик Агентства. Также в рейтинге отмечена эффективность мер по борьбе с бедностью в регионе.

— Вхождение в пятерку лидеров Национального рейтинга воспринимаю как подтверждение правильности выбранного курса и ориентир для дальнейших решений в социальной сфере, экономике и развитии инфраструктуры. Главная задача остается неизменной — улучшать качество жизни людей на островах, — отмети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вручили награды победителям лыжного марафона, посвященного памяти И. П. Фархутдинова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завершился XXVII Международный Сахалинский лыжный марафон, посвященный памяти И. П. Фархутдинова. Председатель правительства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Алексей Белик вручил награды победителям в гонке на дистанции 50 километров свободным стилем.

На старт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Сахалинского лыжного марафона, посвященного памяти И. П. Фархутдинова, традиционно выходят не только профессиональные спортсмены, но и любители. Трасса проходит в красивейших местах. Она начинается в селе Лесном Корсаковского городского округа, расположенном на берегу моря. Финиш — на лыжероллерной трассе школы олимпийского резерва по зимним видам спорта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Количество участников с каждым годом растет. В этом году заявки подали более 1000 человек. Они представляют свыше 50 регионов России. Примечательно, что среди них немало именитых спортсменов. Дело в том, что на неделе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начнется чемпионат России по лыжным гонкам. Спортсмены уже съезжаются на остров. И многие из них решили принять участие в островном марафоне, чтобы как следует акклиматизироваться в преддверии главных стартов.

— Южно-Сахалинск не случайно стал местом проведения чемпионата России по лыжным гонкам. Мы целенаправленно развиваем инфраструктуру зимних видов спорта, приобщаем людей к здоровому образу жизни. Важную роль в этой работе играют и такие массовые мероприятия, как сегодняшний лыжный марафон. Наши усилия приносят плоды.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более 70 процентов жителей Сахалина и Курильских островов регулярно занимаются спортом и физкультурой. Эти люди меньше болеют, получают больше радости от жизни. И для нас очень важно, что наша современная инфраструктура и накопленный опыт оказались востребованными для проведения спортивного мероприятия федерального масштаба, для пропаганды здорового образа жизни в масштабах всей страны, — сказал Алексей Белик.

Председатель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и директор серии марафонов RUSSIA LOPPET Георгий Кадьков-Орбелиани вручили награды победителям на 50-километровой дистанции. Среди женщин шестое место у Натальи Кулагиной. Пятое — у Ирины Ибрагимовой, четвертое — у Ольги Царевой. Третье место завоевала Татьяна Заборская, второе — Елизавета Шалабода. «Золото» марафона увезет с собой Арина Кусургашева. Все шестеро — участницы сборной России по лыжным гонкам.

— Бежала марафон на Сахалине впервые, мне очень понравилось. Удалось даже посмотреть вокруг, на пейзажи. Очень красиво. Я приехала на чемпионат России и сначала не планировала участвовать в марафоне. Но потом с тренером решили все же подать заявку, почувствовать, продышаться, — поделилась Арина Кусургашева.

Шестое место среди мужчин занял Алексей Шемякин. Пятое — Андрей Алипкин. Четвертое — Олег Поляков. «Бронза» у олимпийского чемпиона Дениса Спицова. «Серебро» — у Андрея Зародова. «Золото» завоевал Андрей Мельниченко. Все, кроме Олега Полякова, входят в сборную России.

(По материалам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Ким Чен Ын переизбран Генеральным секретарем ТПК и обновил правящую элиту

(Окончание. Начало на странице 4)

Эксперт Им Ыль Чхуль из южнокорейск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Кённам отметил, что речь идет о демонстрации достижения целей, превосходящих предыдущие этапы развития государства. По его словам, сохраняется идеологическая рамка "ки-мирнизма-кимчениризма", однако одновременно подчеркивается, что нынешний лидер реализует более масштабные и

принципиально новые задачи. Перестановки в кадровой сфере означают полную уверенность в своих силах и освобождение от возрастных фигур, которые помогли Киму править до этого, когда он чувствовал себя менее уверенно, должен был опираться на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предыдущей элиты и, возможно, просто ждал, когда наберется опыта и сил "его личная гвардия" в составе среднего звена руко-

водства партии, армии, правительства. Теперь он ее выводит на первые роли.

Эксперты отмечают, что более точные выводы об итогах можно сделать только после получения полной версии ключевого отчета Ким Чен Ына, и не факт, что документ появится в открытом доступе. Вопросы в том числе остаются в отношении поправок в устав ТПК, а они были утверждены только без сообщения их точного содержания.

Тем не менее уже известные решения позволяют говорить о стратегическом переломе. Переизбрание генерального секретаря стало не просто процедурным актом, а политическим оформлением нового этапа развития режима.

IX съезд ТПК, судя по принятым решениям и сопровождавшей их риторике, обозначил переход от периода наследования власти к этапу, когда легитимность системы все в большей степени строится на достижениях и политическом проекте самого Ким Чен Ына — того, что в КНДР теперь называют началом новой исторической эпохи.

(Олег Кирьянов, РГ)

연구 결과 요약

사할린 동포 정착, '권리에 기반한 정착'으로의 전환을 촉구한다.

1. 핵심 요지

지구촌동포연대(KIN)는 「사할린 동포 영주귀국 정착지원 실태조사」 2026 보고서를 발간하고, 영주귀국 정책을 '지원'이 아닌 권리 기반 정착(Rights-based Settlement) 체계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이번 보고서는 2025년 설문조사(231명)와 포커스 그룹인터뷰(FGI), 전문가 자문을 바탕으로, 2021년 특별법 시행 이후에도 정착지원이 임대주택·기초생계비 중심의 선별적 복지로서 축소되어 언어·문화 적응, 사회적 고립 해소 등 핵심 정착지원이 부재하다는 점을 확인했다.

특히 최근 사할린동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영주귀국 대상 범위가 확대되는 전환 점을 맞은 만큼, 법 개정의 효과가 현장에서 실질적 정착 성과로 이어지도록 정착지원체계·안정적 인 예산확보·성과관리 등 후속 제도화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2. 배경: '귀국' 이후가 더 어렵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1~2025) 영주귀국 대상자의 인구 구조가 급격히 변화했다. 고령의 1세대는 10% 미만으로 줄어든 반면, 1961년 이후 출생한 자녀세대가 전체의 과반을 차지하는 '새로운 주류'로 부상했다.

문제는 현행 지원 정책이 여전히 1세대 중심의 '요양·돌봄'에 머물러 있다는 점이다. 2025년 실태 조사 결과, 고학력 전문직 출신인 2세대 귀국자들의 77.9%가 초기 정착의 가장 큰 어려움으로 '언어 장벽'을 꼽았다. 이들은 한국어 능력 부족 등으로 인해 노동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 순 노무직을 전전하거나, '빈곤의 덫'에 갇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3. 법 개정과 후속과제

이번 사할린동포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는, 영주귀국 범위 확대하여 중요한 제도적 진전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러나 이로 인하여 더욱 다양해진 자녀세대의 영주귀국이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준비가 필요하며, (1) 원스톱 정착지원체계, (2) 사할린동포법 개정 등 정책 추진을 위한 단기~장기 개선안 마련, (3) 예산의 안정적 확보가 함께 갖춰져야 사할린 동포의 피 해구제와 그들의 '권리의 실현'으로 이어진다고 강조했다.

보고서 링크: http://www.kin.or.kr/?page_id=8926&mod=document&uid=6291&execute_uid=6291

"세계한인회장대회, 이제 동포가 직접 이끈다"

2026년 제1차 세계한인회장대회 운영위원회 개최, 운영규정 제정

재외동포청(청장 김경협)은 2월 12일(목) 2026년 제1차 세계한인회장대회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세계한인회장대회 운영규정」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운영규정 제정은 세계한인회장대회를 정부 주도가 아닌 동포사회가 직접 이끄는 구조로 전환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특히 국민주권 정부의 국정 원칙인 '경청'과 '통합'을 실현하기 위해 주요 한인회장들로 구성된 운영위원회가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 개청 이후 첫 「세계한인회장대회 운영규정」을 확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전 세계 700만 재외동포의 구심점인 한인회의 리더들이 참여하는 세계한인회장대회는 앞으로 '자율', '참여', '책임'을 핵심 가치로 하여 운영된다.

대륙별·국가별·지역별 한인회의 대표 한인회장들이 대회의 방향과 운영을 주도하면서, 세계한인회장대회는 동포 사회의 역량을 하나로 모으는 실질적인 협력의 장으로 발전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운영위원회에서 제정된 운영 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앞으로 세계한인회장대회는 동포사회 주도로 이뤄진다. 대회 운영의 최고 의결·집행기구인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을 기존 재외동포청장에서 민간으로 이양한다. 운영위원들이 재외동포 중에 운영위원장을 선출한다.

운영위원회는 세계한인회장대회의 기본계획 및 주요 프로그램

등을 주도적으로 만들어 나간다.

다음으로, 세계한인회장대회에 참석한 한인회장 전원이 참여하는 세계한인회장총회를 신설하여 동포 사회의 공통 현안을 논의한다. 이는 한인사회의 대표성을 가진 네트워크로서 발돋움할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한인회간 갈등을 동포사회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 대륙별 총연합회와 세계한인회장대회 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하는 분쟁 조정·중재 절차를 마련하였다.

한편, 운영위원회는 이번에 제정된 「세계한인회장대회 운영규정」에 따라 오는 3월 9일(월) 초대 민간 운영위원장을 선출할 예정이다.

자세한 선거 일정 및 방법 등은 재외동포청 누리집(www.ok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운영위원장인 김경협 청장은 "국민주권 정부의 기조에 맞춰 우리 청은 '동포의 목소리에 국가가 책임있게 답하겠다.'고 약속했다."면서,

"이번 운영규정 제정은 작년 세계한인회장대회에서 한인회장들이 한뜻으로 결의한 한인회의 주도적인 대회 운영을 보장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외동포청은 한인사회가 세계한인회장대회를 성공적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든든한 지원자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재외동포청 제공)

이순신 탄신 480주년 기념 이색적 무대 펼쳐진다

시범국립중앙박물관, 28일 오후 1시, 열린마당서 무료 공연

해군 의장대 제식 악대 공연으로 호국정신 계승 '우리들의 이순신' 특별 전시도...

국립중앙박물관(관장 유홍준)은 특별전 '우리들의 이순신'과 연계해 오는 28일 오후 1시 박물관 열린마당에서 '총무공 이순신의 후예' 대한민국 해군 군악대·의장대 특별공연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광복 80주년과 이순신 장군 탄신 480주년을 기념해 마련된 특별전의 의미를 확산하고, 관람객에게 색다른 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됐다. 전시가 조명하는 이순신 장군의 호국정신과 오늘날 대한민국의 바다를 수호하는 해군의 위용이 어우러져 과거와 현재를 잇는 상징적 무대가 될 전망이다.

공연은 해군 의장대의 정교한 제식 동작과 의장 시범으로 시작된다. 이어 해군 군악대가 품격 있는 연주를 선보이며 현장의 분위기를 고조시킬 예정이다. 공연은 박물관을 찾는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한편, 박물관 특별전시실 2에서 진행 중인 '우리들의 이순신'은 이순신 장군의 인간적 고뇌와 불굴의 의지, 위대한 업적을 입체적으로 조명하고 있다. 이순신 친필본 『난중일기』와 장검을 비롯해 국

보 6건, 보물 30건 등 총 258건 369점의 유물이 전시 중이다. 특히 이순신 종가 소장 유물을 포함한 주요 자료들이 공개돼 학술적·역사적 가치가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해군 의장대 [국립중앙박물관]

전시는 2월 23일 기준 누적 관람객 32만5268명을 기록하며, 국내 문화유산을 소재로 한 국립중앙박물관 특별전 가운데 역대 최고 관람 기록을 세웠다.

박물관 관계자는 "앞으로도 온 국민이 함께 즐기고 소통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다채로운 문화행사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특별전 <우리들의 이순신>은 3월 3일까지 계속된다.

(재외동포신문)

이부진 신라호텔 사장의 커뮤니티 파워는 얼마나 되나

1월 1일-31일 온라인 빅데이터 1967만 건 분석이부진 독주 속, 이수연(쩍시믹스) 2위 급부상 3위 김유진, 4위 김정수, 5위 최수연 등 TOP10

빅데이터 평가 기관인 아시아브랜드연구소는 'K-브랜드지수' 여성 CEO 부문 1위에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선정됐다고 24일 발표했다.

K-브랜드지수는 아시아브랜드연구소가 국내외 연구진과 협력해 개발한 빅데이터 시스템으로, 기존의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과 달리 후보 표본 추출부터 인덱스 선별까지 분야별 전문위원단의 검증을 토대로 진행하고 있다.

이번 K-브랜드지수 여성 CEO 부문은 포털사이트 검색량 상위 30위 여성 CEO를 대상으로, 2026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의 온라인 빅데이터 1967만 3241건을 분석했다.

K-브랜드지수 여성 CEO 부문은 1위 이부진(호텔신라)에 이어 2위 이수연(쩍시믹스), 3위 김유진(한샘), 4위 김정수(삼양식품), 5위 최수연(네이버), 6위 김지원(한세엠케이), 7위 김선희(매일유업), 8위 김혜연(팜젠사이언스), 9위 최현수(깨끗한나라), 10위 정신아(카카오) 등이 TOP10에 이름을 올렸다.

한정근 아시아브랜드연구소 대표는 "최근 K-브랜드지수 여성 CEO 부문은 전통적인 오프라인 경영인의 견고한 브랜드 파워와 글로벌 성과를 등에 업은 실력과 CEO들의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은 세대를 불문하고 '프리미엄 리더

십'의 대명사로 각인되며 부동의 1위를 차지하며 독보적 위상을 재확인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단숨에 2위로 뛰어오른 이수연 쩍시믹스 대표와 4위로 올라선 김정수 삼양식품 부회장의 돌풍은 K-콘텐츠의 폭발적인 성과가 여성 CEO 개인의 브랜드 가치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최현수 깨끗한나라 대표(9위)와 정신아 카카오 대표(10위)가 신규 진입은 여성 리더십 판도에 색다른 긴장감을 불어넣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K-브랜드지수 여성 CEO 부문은 오프라인 수치가 미반영된 온라인 인덱스 수치로, 개별 인덱스 정보와 세부 분석 자료는 공식 홈페이지와 인스타그램에서 확인할 수 있다.

K-브랜드지수는 해당 부문별 트렌드(Trend)·미디어(Media)·소셜(Social)·긍정(Positive)·부정(Negative)·활성화(TA)·커뮤니티(Community)·AI 인덱스 등의 가중치 배제 기준을 적용한 합산 수치로 산출된다.

한편, 2016년 4월에 설립된 아시아브랜드연구소는 매년 주요 기업과 개인에 대한 빅데이터 평가 수치를 토대로 '대한민국 K브랜드대상'을 시상하고 있다.

(재외동포신문)

K-브랜드지수
[국내 여성 CEO 부문 TOP10]

1위 이부진 (The Shilla)
2위 이수연 (XEXY MIX)
3위 김유진 (HANSSEN)
4위 김정수 (Samyang Foods)
5위 최수연 (NAVER)
6위 김지원 (HANS&MK)
7위 김선희 (Maeil)
8위 김혜연 (팜젠사이언스)
9위 최현수 (깨끗한나라)
10위 정신아 (kakao)

아시아브랜드연구소 발표 'K-브랜드지수' 여성 CEO 부문에 1위 이부진(호텔신라)에 이어, 이수연(쩍시믹스), 김유진(한샘), 김정수(삼양식품), 최수연(네이버) 등의 순으로 TOP 10에 이름을 올렸다.

이 모 저 모

(2면의 계속)

Такие общегородские мероприятия получают особый смысл в Год единства народов России, объявленный президентом Владимиром Путиным.

<2026 сахалин 얼음>축제 우승자에게 100만 루블리 상금

2월 21일(토) 제 15회 <сахалин 얼음> 동계 아마추어 얼음 낚시대회가 개최되어 281개 팀이 우승을 위해 경쟁을 펼쳤다. 2026년 얼음낚시대회에 아디게야 공화국, 칼미키야 공화국, 이르쿠츠크주, 모스크바, 블라디보스토크, 하바롭스크를 비롯해 여러 지역에서 참가자들이 모였다. 참가자들은 이른 아침부터 낚시를 하고, 춤도 추며, 놀이를 즐겼다.

축제에서는 겨울낚시에 따른 경기 진행과, 활동교실, 놀이 구역 조성, 수공예품 전시회, 음악공연, 갓잡은 생선으로 요리한 요리쇼가 진행되었다.

축제 참가부문은 단체전에서 남성팀 및 여성팀 혼성팀, 아동팀들을 비롯해 발달장애인 팀들도 참가했다. 경기는 2단계로 진행되어 1단계에서 팀별 나와가 낚시 경기, 2단계에서 참가자 중 우수한 상위50명을 대상으로 하는 개별전 <낚시인 바이애슬론> 경기가 펼쳐졌다. 팀별 부문 경기에서 '코마이'팀이 15kg의 생선을 잡아 금메달을 차지하고, 여성팀 부문에서는 '블라디미로브나'팀이 11.2kg을 잡아 우승을 차지했다.

특히 아동팀의 참가가 돋보였는데 아동팀에서 '스웨틀라 츠키'팀이 7.4kg의 물고기를 잡아 우승, 2위는 3.9kg을 잡은 '이크린키'팀이, 3위는 3.3kg을 잡은 'СИ13'팀이 차지했다. 장애인팀 부문에서는 '패럴림픽 선수'팀이 15kg을 잡아 우승했고, 가장 긴 나와가를 잡은 '주바리'팀의 나와가 길이는 45.4 cm나 되었다.

주최 측은 처음으로 '지난해 우승자 대결'부문을 조성하고,

또한 기존의 여러 부문 경기도 있었으며, 개별 바이애슬론 부문에서는 미하일 쿠즈민이 우승을 차지해 100만 루블리의 상금을 받게 되었다.

이번 얼음낚시대회에서 가장 경력이 많은 사람은 1942년 생인 나탈리아 우타라스였다

Победитель фестиваля Сахалинский лед 2026» выиграл 1 млн рублей

В минувшую субботу, 21 февраля, состоялся 15-ый фестиваль любительской зимней рыбалки «Сахалинский лед», где за победу боролась 281 команда. Соревнования 2026 года собрали гостей-участников из Республики Адыгея, Республики Калмыкия, Иркутской области, Москвы, Владивостока, Хабаровска и других городов. С самого утра гости ловили рыбу, танцевали, играли. На фестивале прошли соревнования по зимней рыбалке, мастер-классы, были организованы игровые зоны, выставки местных ремесел, музыкальные выступления, кулинарные шоу с угощениями из свежепойманной рыбы.

В фестивале участвовали мужские, женские, смешанные и детские коллективы, а также группы людей с ограниченными возможностями здоровья. Соревнования проходили в два этапа — сначала командная ловля наваги, затем индивидуальный «Рыбацкий биатлон» для 50 лучших участников. В командных состязаниях золото забрала команда «Комай» с уловом 15 кг. Среди женских групп победили «Владимировны» с результатом 11,2 кг.

Особенно ярко выступили детские команды. Первое место заняли «Светлячки», поймав 7,4 кг наваги, на втором месте «Икринки» с результатом 3,9 кг, а бронза с уловом 3,3 кг досталась «СИ13».

В категории участников с ограниченными возможностями здоровья победили «Паралимпийцы» с уловом в 15 кг. Самую длинную навагу поймала команда «Зубари» — 45,4 см.

Организаторы впервые провели «Битву победителей предыдущих лет». Были и традиционные номинации. В индивидуальном биатлоне главный приз в миллион рублей достался Михаилу Кузьмину.

Самым опытным рыбаком состязаний стала Наталья Утарас 1942 года рождения.

<건강해지는 것 • 이게 유행>활동의 일환으로 100명 이상, 얼음물 세례 받아

러시아 75개 도시들에서 동시에 진행되는 행사에 사람들이 참가하는 가운데 2월22일(일) 유즈노сахалин스크에서 <건강해지는 것이 유행>이라는 주제로 스포츠-애국 행사가 진행되었다. 이에 섬주민들을 비롯해 다른 지역들과 7개국의 주민들이 참가했다. 2026년에는 다양한 연령대의 сахалин 주민 100명 이상이 얼음물세례를 치렀다.

이 행사는 '고르니 워즈두흐' 중간역에서 진행되었고, 유즈노сахалин스크에서는 이번이 4번째로 열렸다. сахалин의 참가자들은 얼음물세례 전에 러시아 국기의 3색 티셔츠를 입고 참가했다. 행사장에서는 사회자와 지제이(DJ)가 환층 분위기를 돋우며 행사를 진행하고, 참가자들에게는 따뜻한 차를 제공하며, 협찬이 제공하는 경품 추첨행사도 있었다.

Более сотни сахалинцев облились холодной водой в рамках акции «Быть здоровым – это модно»

Они присоединились к мероприятию, прошедшему одновременно в 75 городах России.

В воскресенье, 22 февраля,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провели спортивно-патриотическую акцию под названием «Быть здоровым — это модно». Помимо островитян, к ней присоединились жители других регионов и семи стран мира. В 2026 году ледяной водой обливались более 100 сахалинцев разных возрастов.

Мероприятие провели на средней станции «Горного воздуха». Оно прошло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уже в четвертый раз. Перед обливанием сахалинцы надели футболки в цветах триколора. На площадке работали ведущий и диджей, участников угощали горячим чаем. Кроме того, среди них разыграли призы от партнеров.

(러시아 및 сахалин주 언론기관 자료에서)

СТОМАТОЛОГИЧЕСКАЯ КЛИНИКА "РАДИКС"

Сделай свою улыбку красивой!!!



Тел.: 50-00-50; 43-31-31

Реклама

Продолжается подписка на 2026 год

Подпишись на газету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оддержи национальную газету!

Свежие, эксклюзивные и достоверные новости и публикации из жизни корейского сообщества Сахалина, а также новости из Южной 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Стоимость подписки на 1 месяц — 147 руб. 66 коп. Индекс газеты: ПР575 Газету можно выписать во всех отделениях связ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оможем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ожертвования просим отправлять на расчетный счет: 40703810750340000024 в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м банке ОАО "Сбербанк России" г. Хабаровск. Корр.счет: 30101810600000000608 БИК: 040813608 Получ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ИНН 6501011406, КПП 650101001. Назначение платежа: пожертвование.

МЕБЕЛЬНАЯ ФАБРИКА 1+2 КУПИ ДИВАН - ПОЛУЧИ ПОДАРОК!

ул. Украинская, 58, тел.: 77-77-00

광고-광고

새고려 신문사는 독자 여러분이 신문에 실고자 하시는 광고나 생일 또는 여러 축하문을 접수합니다.

접수 방법은 전화: 43-59-80, 43-72-94. 이메일 : vika131065@mail.ru, skr@sakhalin.ru 로 연락 바랍니다.

<p>Редакция не несет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за содержание объявлений и рекламных материалов. Рукописи не рецензируются и не возвращаются. Мнение редакции не всегда совпадает с мнением авторов.</p>				<p>광고의 내용에 대해서 신문사가 책임을 지지 않음.</p>	
<p>Изд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p> <p>Гл. редактор Бя В.И. с.з. (주필) 배 워토리야</p>	<p>Учредители газеты: автономная некоммерче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p>	<p>Адрес издателя и редакции: 693020 г.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Чехова, 37 Телефон/факс: 43-59-80, 43-72-94, 43-67-85 E-mail: skr@sakhalin.ru http://cafe.naver.com/sekoreasinmun.</p>	<p>Отпечатано в А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ная типография», ул. Дзержинского, 34 Время подписания в печать: По графику - четверг 18-00 Фактически - четверг 23.30</p>	<p>Издаётся с 1 июня 1949 года. Выходит по пятницам 50 раз в год. Индекс ПР575 Тираж 1100 экз.</p>	<p>Газета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а Управлением Федеральной службы по надзору в сфере связи,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и массов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регистрации СМИ ПИ № ТУ65-096 от 22 сентября 2011 г.</p>